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2016년 8월 2일 - UN의 도시화에 대한 Habitat III 회의를 준비하는 대표자에 따르면 세계의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또는 인재의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의 감소는 앞으로 필수가 될 것이다.

도시, 중앙정부, 시민사회, 학계 및 기타 단체의 수백 명의 대표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10월에 개최될 에콰도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완성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추진에 착수하기 위해, 해당 의제의 초안 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지난 주에 모였다.

최신판은 정부가 도시 복원력을 증진시키고, 취약성과 위험성을 약화시키며, 재난위험도 경감을 도시 개발계획과 통합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포함한다.

이미 시행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상호 연관적인 국제조약에 따라 해당 의제는 최신화 될 것이다. 작년 3월 채택된 최초의 의제는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였다.

도시지역은 샌다이 프레임워크의 주된 강조사항으로 세계적인 재난에 따른 사망자와 피해자, 경제적 손실의 억제에 대한 15년간의 청사진이다.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의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증가 추세에 있는 폭풍 등의 날씨 관련 재난 혹은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물 부족 현상에 유독 더 취약하다.

UNISDR의 2015년 전세계 평가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건물의 60%가 아직 건설 중이다. 그러므로 신도시를 설계할 때, 특히 빈민가나 개인거주 지역에 있어 복원력 있는 기반시설의 개발에 대한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미래의 재난에 대한 위험과 영향의 감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장인 얀 반 자넨 시장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에 재난 관리와 재난 경감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네 골목도 안전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

지역 정부 차원에서 센다이 강령과 2015년 9월에 의결된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필리핀 소르소곤 시장 샬리 안테-리는 “도시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인 정책이나 협약에 지식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재난위험도 경감 과정을 적용한다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시는 6만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남긴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더 나은 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반다 아체 시 관계자인 바하기아는 “도시는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상태의 빠른 호전과 회복에 필수적이었다” 라고 말했다.

바하기아 씨는 “센다이 강령, 지속가능 개발, 새로운 도시 계획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시민 참여, 지역지도자들과의 연대와 책임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전세계 3,200개 이상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정부 파트너십의 가장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성장지속 캠페인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평범한 여성들이 이처럼 효과적인 평가 절차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야쿰의 헤피 라마와티씨가 강조했다.

다른 혁신적인 해결책은 도시와 그들의 파트너 그리고 기업들이 지식, 서비스 그리고 도시 복원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본, 네덜란드, UNISDR과의 연대계획인 복원력있는 도시 연대(Resilient Cities Connect)을 포함한다.

UNISDR-ONEA-GETI는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실행에 옮기는 지자체의 시도’라는 이름의 과정을 진행하였다